

## 대종회 정기이사회 개최 정관 개정(파종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대종회는 지난 3월 21일(수) 오전 11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공군회관에서 자정(滋正) 명예회장, 자신(滋信) 회장, 윤회(潤會), 락회(樂會), 흥서(興書), 자한(滋翰), 자훈(滋薰), 연집(然執), 천회(天會), 회회(禧會), 영본(永本) 이사 등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광회(光會) 상임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자신 회장은 개회 선언 후 인사말씀을 통하여 참석한 임원들에게 그동안의 아낌없는 관심

과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종회가 구심점이 되어 구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창 중광재 창호 대문 보수공사 완공, 화순 정동길 초입부터 시조 단소까지의 도로확장 포장공사, 당진 신암사 아래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공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4월 16일부터 이틀간 봉행하는 춘계향사에 많은 종인들이 참여하도록 각 시도종회장들의 독려

를 당부했다. 본호(本昊)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2017년도 결산내역과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어서 정관 제9조 제6항에서 이사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안에 대한 설명 후, 파종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고 이사 수(數)를 현재의 31명에서 3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한다고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신규이사 선임은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하였다.

## 광주·전남종회 정기총회 개최



구제길 회장

광주·전남종회(회장 具連洙, 謨)는 지난 3월 24일(토) 오전 11시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위치한 화순 하니움문화체육센터 강당에서 연수 회장, 제길 수석부회장, 구충곤 화순군수 등 200여 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연수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고, 제길(濟吉, 滋) 수석부회장이 신임회장에 취임하였다. 구회권 상임부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구익순 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연수 명예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20년 전에 회장을 맡았을 때 50대였으나 지금은 70대가 되어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며 젊고 유능한 제길 신임 회장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고 서로 간에 돕고 이해하고 아껴주는 종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길 신임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광주전남종회가 30여 년 전 첫 모임을 가진 이후 연수 명예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 봉사

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며 승조애종과 종력배양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향후 종회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신임 제길 회장은 보건학 박사로서 광주시 세종요양병원 이사장과 세종병원 회장으로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 회장, 대한보건의학회 광주전남지회 회장도 맡고 있고 국제라이온즈협회 광주전남지구 39대 총재도 역임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축사에서 지난 20여 년간 종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많은 성과와 업적을 남기신 연수 명예회장님에게 감사하고 제길 신임회장에게도 축하하며 종회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오늘의 이 자리가 종친 간 서로 소통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종사유공자로 구연수 명예회장과 구충곤 화순군수에게 공로패가 증정되었고, 최고령자인 구제술, 구병수, 구찬우 종인에게 공로 표창패를 그리고 100% 출석한 구완우, 구제천, 구홍덕 종인에게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 서울시종회 정기이사회 개최



구윤회 회장

서울특별시종회(회장 具潤會)는 지난 3월 15일(목) 오후 여의도에 위치한 신동양 대반점에서 영서(榮書), 천서(天書), 장회(章會), 자은(滋恩) 고문과 준회(俊會) 명예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윤회 회장은 지난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종사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종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이 없도록 큰 관심속에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고, 4월 춘계향사에 형제 자매와 자제분들을 포함한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준회(俊會)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있는 후, 향서(香書)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2017년도 결산내역과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오래 동안 감사로 수고한 향서(香書) 감사가 사임함에 따라 신임 감사로 강서구 종회의 창회(昌會) 이사가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이어서 장회(章會) 고문의 건배 선창으로 만찬을 함께하면서 종인들 간 정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4세조 면성부원군종회 정기이사회 개최

4세조 면성부원군종회(회장 구자신)는 지난 3월 21일(수) 오전 11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공군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난해의 결산보고와 2018년도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어서 사임한 평서 감사 후임에 자청(滋淸) 종인을 신임감사로 선출하였다. 이날 판안동공파 찬회(讚會) 회장이 현재 판안동공파 파조공의

단소가 너무 높은 곳에 있고 비좁아, 현재 판안동공파 파조공의 단소를 해체하고 단비와 상석만을 4세조공 묘소 아래에 있는 5·6세조공 망제단 우측으로 옮기는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가부 의견을 물어 이전 위치를 5·6세조공 망제단 우측으로 이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금년 중으로 이전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 대구경북총회 및 좌정승공파총회 합동 신년교례회



구본찬 회장

대구경북총회(회장 本贊)와 좌정승공파총회(회장 本贊)는 지난 3월 17일(토) 대구 구병원 신관 7층 대강당에서 원로위원, 고문, 소문중회장과 총무 등 70여 명의 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합동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본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적극적인 도움으로 무사히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고 2018년도 향사와 총회

등에 대해서 문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성 덕천문중 구진(具 鎭, 會) 회장은 성천재(星川齋) 재실 중수와 12세 입향조이신 星川公(諱 具建宗) 유허비(遺墟碑), 순국열사 구성집(具聖執 1874~1908) 先生의 추모비(追慕碑) 건립을 경상북도와 의성군의 지원을 받아서 위선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욱 연구이사는 “대구의 젓줄 금호강과 우리나라의 서원”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중식은 구병원에서 제공한 비빔밥을 먹으면서 종인들간의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 충북도총회 정기총회 개최



구연집 회장

충북도총회(회장 具然執)는 지난 3월 10일(토)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구박사 식당에서 지역 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자완(滋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연집 회장은 바쁜 가운데 원근각처에서 참석한 종인들에게 4월 춘계향사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서 근조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고 지난해의 결산내역과 금년도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한편 종사유공자로 본주(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종인에게 공로장을 수여하였다.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연집 회장은 바쁜 가운데 원근각처에서 참석한 종인들에게 4월 춘계향사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서 근조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고 지난해의 결산내역과 금년도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한편 종사유공자로 본주(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종인에게 공로장을 수여하였다.

# 전북도총회 정기총회 개최



구희회 회장

전북도총회(회장 具禧會)는 지난 3월 8일(목) 전주 시내 백송회관에서 자춘 명예회장과 40여 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자일(滋日)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와 개회선언에 이어 회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낯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총회가 계속 성장 발전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춘계향사에도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종사유공자로 영희(진안군), 봉회(고창군), 형완(전주시) 종인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자신(滋信) 대총회장을 대신하여 광회(光會) 상임부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경과보고와 감사보고가 있는 후 지난해의 결산보고서와 금년도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대구경북총회 임원들이 지난 3월 6일 계룡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방문하였다.



▲ 고창 중광재 창호 교체로 말끔히 단장.



▲ 콘크리트로 포장한 당진 신암사 아래 주차장

### 송조 애손 (崇祖 愛孫)



구 한 회(具漢會)

세종조의 집현전 학사로 세조 조에서 단종의 복위를 도모했던 사육신인 박팽년이, 학자 출신으로 충절이 고결했던 고려 유신 차원부에 대해 쓴 '차원부설원기(車原類雪冤記)'가 있다. 차원부는 연안 차씨로 그의 고조부는 훈신(勳臣) 차송우(車松祐)다. 차송우는 능성구씨 4세조 면성부원군(諱 藝)의 사위이고, 차원부는 능성구씨 6세조 문정공(諱 禕)의 외손자여서, 겹친 혈연관계이므로 4세조 면성부

원군(휘 예)에 대한 기록이 '차원부설원기'에 기재되어 있어, 내용 중 일부를 간추려서 여기에 옮긴다.

'차송우의 장인 구예(具藝)는 벼슬이 일품(一品)에 이르렀는데, 밥상에 반드시 무김치를 놓게 하고 무김치를 보면, 북쪽의 원나라로 간 충선왕(1325년 원나라에서 객사)이 김치를 좋아했던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저녁에 자택으로 퇴청해서는 아문(衙門)의 소라 소리가 나면 대뜸 평상에서 내려가 바닥에 엎드리며, 가난하게 살았던 조상이 고초를 읊었던 생각을 잊지 않았다. 가세(家勢)가 너무 성대한 것을 경계하여 외람된 생각을 하지 않고 조상이 미천한 사람에게도 굽혔던 뜻으로 공손히 기(氣)를 낮춰 자신의 귀한 티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위 차송우(車松祐)가 해(害·康允紹)의讒訴로 權臣 林衍에게 誅殺)를 입은 것을 두려워하여 더욱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췄다. 명성이 큰 문벌에 속해 있었으므로 화를 면치 못할까 우려하여 날마다 시종 경선(慶善)을 유지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조부 구민첨(具民瞻)도 근신하고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는 조상을 잊지 않았는데, 공(公)

이 조부를 이어 효도하고 문채(文采)를 감취 일신을 편안히 보존하였고, 남을 이길까 두려워하는 등 세심하게 생각한 것은 신명(神明)스럽고도 덕(德)이 있었다.'

차원부설원기는 사육신 사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세상에 출판되어 나온 책이기 때문에 문맥이 부자연스러운 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에 대한 희귀한 사료다. 면성부원군께서 덕을 베풀어 남을 보살피신 적덕(積德)의 흔적은 다른 데에도 있다.

고려 조정의 중직에 계실 때, 원나라에 사신으로 가시느라 국경의 압록강 연안에 이르셨는데, 한 여인이 강물을 쳐다 보며 울고 있어서 사연을 물어본 즉, 그녀가 "관아에서 무고한 제 남편에게 죄를 덮어씌워 억울함을 참지 못해 죽으려고 강물에 뛰어들어갔습니다"하여, 즉시 수행원을 보내 물에 빠진 사람을 구명하고, 관아에 바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신 후, 원나라에 가셨다. 상당 기간 임무수행을 마치고 귀국하시는 길에 압록강을 다시 건너오시자, 출국 시에 구명해 주었던 사람 내외가 거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드렸다.

노년에 관직에서 은퇴하시면서 면천에 사패지(賜牌地)를 받고 낙향하셨는데, 전에 구명했던 사람이 풍수지리학을 공부하고 지관이 되어 면천으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대감께서 신후지지(身後之地)를 정하지 않으셨으면 찾아드리려고 오면서 살펴보니, 면천에 부귀영화(富貴榮華)의 삼혈(三穴)이 있습니다. 삼대(三代) 걸식(乞食) 후에 구대(九代)가 입각(入閣)하게 될 터로서 비룡상천형(飛龍上天形) 천자혈(天子穴)과, 자손만대가 영화를 누릴 터인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지자혈(地字穴)이 있고, 서손(庶孫)이 크게 발복(發福)할 터로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 인자혈(人字穴)이 있습니다." 하고 여쭙었다. 면성부원군께서 "자손이 하나라도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두가 영화를 누릴 터로 정하겠다."고 하시어서, 현재의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교리 산63번지 신암산(申庵山) 자좌지원(子坐之原)에 산소(山所)를 정하게 된 것이다. 조상을 숭배하고 자손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의 안위를 배려하셨던 거룩한 조상의 유덕이 이러하므로, 후손인 우리들은 고이 받들어 길이길이 세전해야 한다.

#### 보학교실 - 선조(先祖) 사적(事跡) 45

### 13세 문의공(文懿公) 팔곡(八谷) 구사맹(具思孟)

전통문화연구가 구 자 청



1604년(선조 37) 4월 2일에 승록대부 원임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 춘추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팔곡(八谷) 구공(具公)이 서울의 송현리에 살고 있던 집에서 돌아가셨다. 선조 임금께서 몹시 슬퍼하여 조정의 정무를 정지케 하고 의례에 따라 조의(弔儀)와 홀전(恤典)을 베풀었다. 그해 겨울에 호성(扈聖) 선무(宣武) 정난(靖難)의 세 가지 원종공신(原從功臣) 녹권(錄券)을 내렸다. 또 큰아들 능해공 구성(具歲)이 호성공신이 되었으므로 은례(恩例)에 따라 '순충 적덕 보조공신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능안부원군'에 추증되었다. 1623년(인조 즉위년)에 이르러 임금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 막내아들인 능성부원군 구광(具宏)이 인조반정 시 1등 공신이 되어 '병의(秉義)' 두 글자가 더 추증되고 '문의(文懿)'라는 시호를 내렸다. 1632년(인조 10)에 이르러서는 임금이 원종대왕(인조의 친부)을 추숭(追崇)하였으므로, 공의 작위를 국구(國舅:임금의 외조부)에 합당하게 추봉해야 했음에도 더 이상의 추증은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자손들이 공의 덕을 추가로 기술하여 사실을 적기 위해 신도비를 세우게 되었으니, 이에 유감(遺憾)이 없을 것이다. 능성부원군이 "내가 젊었

을 적에 글 솜씨로 공의 문하에서 재능을 인정받은 처지인지라 오욕(汚辱)이 아첨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비명(碑銘)을 부탁하였다. 내가 아무리 사양을 해도 되지 않아서 삼가 그 대략을 서술하여 비명을 짓는다.

삼가 살펴보면, 공의 이름은 사맹(思孟)이요 자는 경시(景時)로 팔곡(八谷)은 그의 호이다. 구씨는 본래 능성인(綾城人)으로 고려 때부터 두드러진 큰 성씨가 있었는데, 이름을 예(藝)라고 하는 분은 나라에 공훈을 세워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그 아들 영검(榮儉)은 전리판서를 지내고 면성군(沔城君)에 봉해졌다. 영검의 아들 위(禕)는 문하좌정승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위(禕)의 아들 성로(成老)는 개성부윤을 지냈으며, 성로의 아들 양(揚)은 처음으로 우리 조정에 벼슬하여 공주목사를 지냈다. 양(揚)이 치홍(致洪)을 낳으며 벼슬이 지중추부사에 이르렀으니, 바로 공의 고조(高祖)이다. 증조의 이름은 수영(壽永)이니 나라에 공훈을 세워 능천군(綾川君)에 봉해졌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희경(希璟)이니 영유현령을 지냈으며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순(淳)으로 사헌부 감찰을 지냈으며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어머니는 정경부인(貞敬夫人) 이씨

로 종친(宗親) 의신군(義新君) 이징원(李澄源)의 따님이다. 공은 덕행과 기예가 숙성하여 나이 19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기(喪期)를 마친 뒤 또 한성시(漢城試)에서 수석을 차지하였다.

1558년(명종 13)에 문과에 급제하여 처음에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에 선임되었다가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기사관으로 옮겼으며, 대교(待教)로 승진하고, 이어서 승정원의 주서(注書)가 되었다. 1560년(명종 15)에 성균관의 전적(典籍)으로 승진되고, 다시 사간원의 정언(正言)에 발탁되었다가 병조좌랑으로 옮겼으며, 지제교(知製敎)에 선임되었다. 이때부터 시강원의 사서(司書)와 홍문관의 수찬(修撰) 및 교리(校理), 사간원의 헌납(獻納), 사헌부의 지평(持平) 등에 두루 임명되었다. 1563년(명종 18) 겨울에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북경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와서 복명(復命)한 후에 이조좌랑 및 정랑, 교서관의 교리(校理) 등에 두루 임명되었다가 의정부의 사인(舍人)으로 승진되었다. 그 후 예빈시의 정(正)과 사헌부의 집의(執義), 사간원의 사간(司諫), 내섬시의 정(正), 홍문관의 응교(應敎), 성균관의 사예(司藝) 등을 역임하였다. 1567년(명종 22)에 명종이 승하하였을 때 사재감정(司宰監正)으로 빈전도감(殯殿都監)의 도랑(都郎)이 되었다. 국상이 끝나자 상계(常階)인 통정대부의 품계로 승정원의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임명되었는데, 갑자기 대간(臺諫)들의 평론 때문에 교체되었다. 그 후 장례원의 판결사(判決事)를 거쳐 다시 승지(承旨)에 임

명되어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이르렀으며, 이어서 호조참의로 자리를 옮겼다가 외직인 황해도관찰사로 나갔으나, 겨우 해를 넘기고는 사건이 생겨서 파직되어 돌아왔으며,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외직에 나가기를 요청하여 남원부사로 나갔다.

1572년(선조 5)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기를 모두 마친 후 1575년(선조 8)에 충청도관찰사로 나갔으며, 이듬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사신이 되어 다시 북경에 갔다가 돌아오자 예조참의에 임명되고, 또 전라도관찰사로 나갔다가 형조참의가 되고 이어서 병조참의로 옮겼다. 1581년(선조 14)에 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에 임명되고 좌승지로 옮겼으나, 또 대간들의 평론 때문에 교체되어 남양부사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 성균관의 대사성과 호조참의에 임명되었으며, 경주부윤으로 나갔다가 임기만료 후 다시 장예원의 판결사가 되었다. 1589년(선조 22) 봄에 강원도관찰사에 임명되고, 그 이듬해 여름에 승정원의 좌승지로 제수되어 광국원종공신(光國原從功臣)의 녹권이 하사되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 품계가 올라 병조참판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경기도관찰사로 나갔다. 1592년(선조 25)에 동지중추부사로 전임되었다가 한성부좌윤, 동지의금부사, 도총부부총관이 되었다. 이때 임진왜란을 만나 임금의 행차를 따라 평안도로 가던 중 평양에서 왕자를 모시고 산촌으로 들어가 구불구불 돌아서 의주(義州)에 도착하자 이조참판에 임명하고 품계를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올려서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임시켰다. (4면 하단에 계속)

### 2018년도 춘계향사 안내

- ◆ 능주(시조·2세) : 양력 4월 16일(음력 3월 1일)(월) 오전 11시
- ◆ 고창(3세) : 양력 4월 16일(음력 3월 1일)(월) 오후 3시
- ◆ 당진(4~7세) : 양력 4월 17일(음력 3월 2일)(화) 오전 11시

조상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춘계 향사에  
모두 참여합시다

선조	호 칭	휘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시조	벽상삼한 삼중대광 검교상장군공	존 유 存裕	4월 16일 (음 3/1) 오전 11시	월	전남 화순군 한천면 정리 432 (정동 마을)	대중회
2세	전주목사록참군 겸 장서기 동평장사공	민침 民瞻	4월 16일 (음 3/1) 정오 12시	"	"	"
행로	동광주인터체인지에서 광주 시내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 우측으로 광주·화순간 우회도로를 타고 → 너릿재터널을 지나서 → 화순·보성간 도로를 타고 → 능주 림프를 지나 한천 림프로 내려가서 좌회전 → 금전저수지를 지나서 → 한천우체국에서 좌회전 → 과수원 삼거리에서 다시 좌회전 → 시조 단소 (정동 마을)					

선조	호 칭	휘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3세	안동면도감판관 중문하좌정승 면성부원군공	연 琰	4월 16일 (음 3/1) 오후 3시	월	전북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1229 (선동 마을)	대중회
행로	①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인터체인지로 나가서 → 석교교차로에서 좌회전 → 상용터널 → 선운사터널 → 인천강교 → 삼인교차로에서 좌회전 → 다시 좌회전 → 삼인터널 → 3세 묘소 (선동 마을) ②호남고속도로 정읍인터체인지로 나가서 IC사거리에서 좌회전 → 다시 좌회전 → 정읍교를 건너서 → 주천삼거리에서 좌회전 → 성내교를 건너서 → 제하사거리 로타리에서 좌회전 → 아동교차로에서 우회전 → 상용터널 → 선운사터널 → 인천강교 → 삼인교차로에서 좌회전 → 다시 좌회전 → 삼인터널 → 3세 묘소 (선동 마을)					

선조	호 칭	휘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4세	중대광 면성부원군 판전의시사공	예 藝	4월 17일 (음 3/2) 오전 11시	화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교리 526 (신암산)	4세조면성 부원군중회
5세	중대광 전리판서 면성군공	영검 榮儉	4월 17일 (음 3/2)	"	"	"
6세	소부윤 증삼중대광 문하좌정승 문정공	위 禕	4월 17일 (음 3/2)	"	"	"
7세	판안동 대도호부사공	성량 成亮	4월 17일 (음 3/2)	"	"	판안동과 중회
행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인터체인지에서 당진 방향으로 좌회전 → 기지시리2교 밑을 지나자마자 우회전하여 빙글 돌아 가다가 → 우측으로 내려가 좌회전하여 기지시리1교 밑을 지나가고 → 가교1리(신암사) 표지석에서 우회전하여 가다가 → 삼거리에서 좌회전 → 4세 묘소 (신암산)					

선조	호 칭	휘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7세	삼중대광 문하좌정승 면성부원군 문절공	홍 鴻	4월 29일 오전 11시	4월 끝 일요일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동 창포산 (모선당)	좌정승과 중 회
8세	가선대부 병조참판공	종지 宗之	"	"	"	"
행로	대구광역시 서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북쪽으로 약 8km, 대구광역시 북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북쪽으로 약 5km, 무태행 버스를 타고 창포산입구에서 하차, 걸어서 500m (모선당)					

선조	호 칭	휘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8세	가선대부 이조참판 진북절도사공	종절 宗節	4월 06일 (한식) 오전 11시	금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송계당)	절도사공 중
9세	가선대부 지의성군사공	익령 益齡	"	"	"	"
행로	대구광역시 서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북쪽으로 약 8km, 대구광역시 북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북쪽으로 약 5km, 무태행 버스를 타고 서변동에서 하차, 걸어서 200m (송계당)					

선조	호 칭	휘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8세	통정대부 공주목사 증의정부 영의정 능원부원군공	양 揚	4월 06일 (한식절사) 오전 11시	금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313-1	목사공중 중
9세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충렬공	치관 致寬	"	"	"	충렬공중 중
행로	곤지암인터체인지로 나가서 → 곤지암교를 건너서 → 곤지암사거리주유소에서 좌회전 → 실촌교를 건너서 → 연미교를 건너서 → 하열미 삼거리에서 좌회전 → 8세 묘소					

선조	호 칭	휘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6세	상정의대부 공조전서공	의 義	4월 25일 (음 3/10) 오전 11시	수	전북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전서공중 중
행로	함열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7km					

선조	호 칭	휘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7세	가선대부 호조참판공	성미 成美	4월 22일 오전 11시	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참판과 중회
행로	완주군 소양면사무소에서 약 6km					

선조	호 칭	휘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7세	가선대부 지문천군사공	원립 爰立	4월 25일 (음 3/10) 11시 30분	수	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	문천군사 과 중 회
행로	함열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1.5km					

(3면에서 계속)  
1594년(선조 27)에 지중추부 춘추관사로 교체되어 중전(中殿:왕비)을 모시고 해주(海州)에 머물다가 서울로 돌아오자, 공조판서에 임명되고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겸직하여 이몽학(李夢鶴)의 역당을 국문하는데 참여하였으므로, 그 공으로 품계가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올랐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시 의정부 우참찬으로 왕자를 모시고 성천(成川)에

피난하였다가 돌아와 승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에 오르고 의정부우찬성으로 승진되었다. 1601년(선조 34)에 이조판서에 임명되고 판의금부사를 겸직하여 길운절(吉雲節)의 역모사건의 국문에 참여한 공으로 승록대부(崇祿大夫)의 품계에 올라 의정부좌찬성으로 승진하였다. 이듬해 아들 능해공(綾海公:具晟)이 귀양을 가게 되자, 공은 벼슬을 사직하고 한적한 생활을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경연사

(經筵事)를 겸임시키고 여러 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는데, 1604년(선조 37)에 판의금부사를 겸임시켰다. 공은 평소 산증(疝症)으로 고생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다시 병이 심하였는데, 잠시 병이 뜸해지자 아버지의 기일(忌日)을 당하여 목욕재계한 후 제사를 모소 봉행하려 하므로, 자손들이 설 것을 아뢰었으나 제사 봉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앓고 있던 병이

다시 재발되어 마침내 돌아가시니, 향년이 74세였다.  
(이 글은 조선 중기의 문장가 택당(澤堂) 이식(李植) 선생이 지은 <문의공신도비명>으로 <국역국조인물고>를 저본으로 하고, <조선왕조실록>과 <능성구씨문헌록>을 참고하여 수정과 보완, 그리고 윤문(潤文)하였음을 밝혀둔다./ 필자)  
■ 앞으로 보학교실은 전통문화연구가인 구자청 종인(도원수공파 충렬공 후손)이 집필합니다.

# 강화중중회장 취임 영철(會) 신임회장 선출



인천광역시 강화 중회(회장 구달회)는 지난 3월 20일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에 위치한 경원재에서 70여 명의 지역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 6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구영철(會)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수석부회장 : 구경호, 총무이사 : 구자현, 감사 : 구응회)

구영철 회장

## 동정

###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취임



구본극(具本極) 충주 양성중학교장이 지난 3월 2일 충주교육지원청 제32대 교육장에 취임했다. 구 교육장은 판안동공

파 후손으로 (1984년 노은중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해) 무극중학교·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충주여자고등학교 교감을 지냈으며, 양성중학교 교장을 거쳐 2018년 3월 1일자로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했다. 구 교육장은 “다 함께 즐겁게 배우고, 당당히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행복한 배움의 터전을 만들겠다”며 “미래를 위한 꿈, 세계를 향한 도전, 모두를 위한 동행으로 행복한 ‘충주교육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사무처 의사과장으로 부임



구현우(具顯祐) 국회사무처 의안과장(부이사관)이 지난 1월 의사국 의사과장으로 부임했다. 구 과장은 경기도종회장을 지낸 도원수공파 총렬공 종손인 교운(敎雲) 종인의 장남이다.

### 골프협회장에 취임



구교영 종인이 지난 3월 17일 경기도 하남시 제10대 골프협회장에 취임했다. 이날 행사는 하남시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

으며 구교영 협회장은 도원수공파 총렬공계 직장공 종중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 부음

구장회(具章會) : 전 대종회 이사, 경남종회장) 별세 : 3월 13일

###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영터리 보첩(성씨보감, 대동보감, 뿌리보감 등)을 만들어 대종회의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종인들에게 문중발전기금 명목으로 거액을 갈취하는 일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최근 들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대상을 골라 대종회 사무국장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수 년 간에 걸쳐 보감을 편찬했는데 재정이 어려운 대종회를 위해서 한 질만 구입해 달라면서 20만원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으니 종인들께서는 이러한 전화를 받으시면 무조건 전화를 끊으시고 대종회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 능성구씨대중회 02-742-6818

## [성금내역] (2018. 1. 1~ 3.23)

정성어린 성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사는 종인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대종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연운  
100만원

황서 노원구 중계동	10,000
태서 고창군 고창읍	100,000
한희 영등포구 여의도동	50,000
건모 청주시	50,000
윤서 주소 미상	10,000
본웅 양천구 신정동	20,000
본욱 주소 미상	50,000
경이 고양시 마두동	20,000
상용 김제시 신흥동	50,000
제용 주소 미상	100,000
경희 이사 강서구 화곡동	200,000
현서 주소 미상	50,000
달서 주소 미상	10,000
자은 동작구 흑석동	30,000
자욱 성동구 성수동	30,000
자행 부산시 당리동	20,000
만서 울산시 울주군	50,000
평서 영등포구 신길동	50,000
연운(운기) 안양시 석수동	50,000
자호 광진구 구의동	20,000
의서 청주시 봉명동	30,000
자용 은평구 응암동	50,000
연집 이사(충북도종회장)	100,000
소계	1,180,000
누계	1,180,000

### <이사협찬금>

천회 이사(충남도종회장)	1,000,000
형회 이사	1,000,000
향모 이사	1,000,000
경회 이사(서울)	1,000,000
소계	4,000,000
누계	4,000,000

### <장학특찬금>

연운(운기) 안양시 석수동	1,000,000
소계	1,000,000
누계	1,000,000

### <연회비>

자관 마포구 상암동	20,000
연정 파주시 동패동	200,000
자은 동작구 흑석동	20,000
자욱 성동구 성수동	20,000
연운(운기) 안양시 석수동	50,000
소계	310,000
누계	310,000

### <종보구독료>

정배 인천시 용현동	30,000
------------	--------

### <4세조면성부원군종회 - 이사협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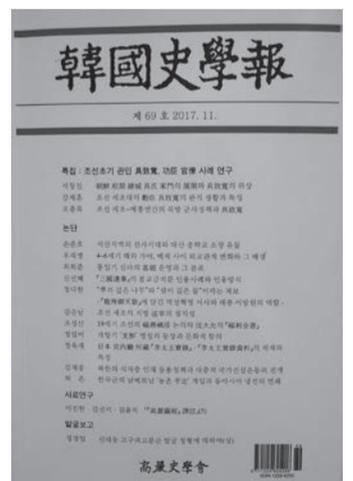
연집 이사(충북도종회장)	200,000
천회 이사(충남도종회장)	200,000
형회 이사	200,000
자국 이사	200,000
소계	800,000
누계	800,000

### <4세조면성부원군종회 - 운영특찬금>

찬회 이사(판안동공파종회장)	300,000
소계	300,000
누계	300,000

## 총렬공 사례 연구 한국사학보에 게재

총렬공 구치관 연구소(소장 구자청)는 지난해 9월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한 '조선 초기 격변기의 관료 정치인 구치관'에 대한 콜로키움(전문가토론회)에서 발표된 석창진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선 전기 능성 구씨 가문의 전개와 구치관의 위상', 강재훈 교수(고려대학교)의 '조선 세조대의 훈신 구치관의 관직 생활과 특징', 오종록 교수(성신여대)의 '조선 세조~예종연간의 북방 군사정책과 구치관' 등 3편의 논문이 권위지인 한국사학보 제69호에 게재되었다.



# 전깃불만큼이나 반딧불이도 많은 청정한 세상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  
흘려보내던 전기를 저장했다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는 기술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한 혁신을 넘어  
다음 세대의 더 나은 삶에도 기여하는 혁신  
LG의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옳은미래.

